

『재관람 카드의 비밀』

최상아 글 | 이윤희 그림

**주 제 어:** #뮤지컬 #덕질 #덕밍아웃 #같이\_볼래? #귀신\_덕친

**분 류:** 문학 > 한국문학 > 청소년 소설

**작 성:** 최혜경 (창원명서중학교 교사) 이금희 (함안호암중학교 교사)

하정현 (창원구산중학교 교사)

## 작품 소개

뮤지컬 덕후 시은이는 오늘도 본인의 공연을 보러 간다. 하늘 아래 같은 공연은 없으니까, 재관람에 재관람을 거듭한다. 그런데 혼자 즐기러 온 공연에서 시은이는 예상치 못한 덕후를 만난다. 공연 중에 노래를 부르고, 이리저리 자리를 옮기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재관람 카드를 들이치는 귀신 뮤덕 주희를 말이다! 뮤지컬과 본진을 좋아하는 건 혼자만의 일로 남기고 싶지만, 주희는 같이 좀 좋아하자며 끈질기게 시은이를 따라다닌다. 시은이는 이제껏 누군가와 감정을 나눠 본 적 없는데, 과연 이 귀신 뮤덕과 덕친이 될 수 있을까?

## 활동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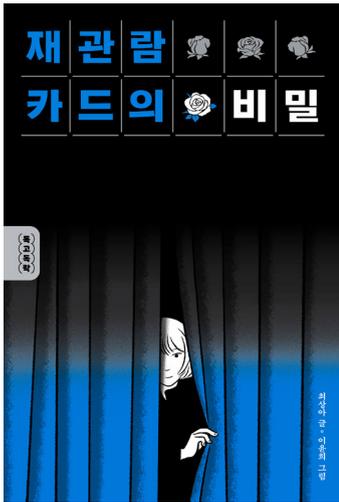
학교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막상 말을 건네면 말을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까워지고자 말을 건넨 것이 오히려 아이를 더 불편하게 하는 듯하여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의 이별로 상처를 입은 소설 속 주인공 시은이도 그런 아이입니다. 뮤지컬 장르를 덕질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지만 누구에게도 진실된 마음을 전하지 못하는 시은이는 같은 배우를 좋아하는 귀신, 주희 언니를 만나 마음의 힘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지만 개인적인 삶이 우선이 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우리는 ‘관계 맺기’에 점점 소홀하고 무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을 통해 뮤지컬 덕후의 삶을 엿보는 재미와 함께 일상에서 가족과 친구, 나아가 사회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도록 활동지를 구성하였습니다. 자신의 인간관계를 그려 보고 성찰하는 활동을 통해 더욱 행복한 삶을 꿈꾸고 가꾸어 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 독서 계획

단계	활동 내용
생각 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책 표지와 속지 그림으로 작품의 내용 예측하기</li><li>▶ 나의 경험 공유하기-1</li><li>▶ 나의 경험 공유하기-2</li></ul>
생각 펼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책을 읽고 떠오른 단어 공유하기</li><li>▶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단어 뜻 찾아보기</li><li>▶ 시를 활용하여 주인공의 심리 파악하기</li><li>▶ 주인공 감정 변화의 흐름 파악하기</li><li>▶ 주인공의 성장(변화) 과정 정리하기</li></ul>
생각 더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나의 인간관계도 그리기</li><li>▶ 나의 인간관계에 대한 글쓰기</li><li>▶ 두 마음 토론 하기</li><li>▶ 나의 주변 돌아보기</li></ul>

## 생각 열기

1. 제목과 표지, 속지의 그림을 보고 상상하여 4~5문장의 이야기를 만들어 봅시다.



-----

-----

-----

-----

2. 지금까지 봤던 책, 영화, 연극, 뮤지컬 중 N차 감상했거나, 다시 보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친구들에게 소개해 봅시다.

-----

-----

3. 내가 덕질을 할 만큼 좋아하는 대상이 있나요? 있다면 소개해 봅시다.

-----

-----

## 생각 펼치기

1. 책을 읽고 떠오르는 단어를 5개 적어 봅시다.

--	--	--	--	--

2. 작품에서 뮤지컬 덕질과 관련된 단어를 찾아 정리해 봅시다.

단어:	단어:	단어:
단어:	단어:	단어:

**선생님께** 간단한 검색을 통해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안내해 주세요. 더불어 학생들이 덕질하는 분야에 자주 쓰이는 단어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세요.

3.작품 마지막에 시은이는 주희 언니가 남겼던 말 '좋아한다고 말하는 게 어때서'를 떠올리면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만일 시은이가 다음 시를 읽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상상하여 적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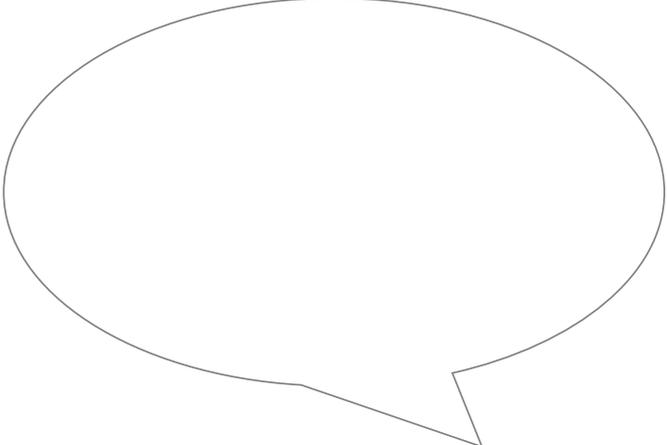
겨울바람 서금복

막상 나와 보니  
견딜 만한 걸  
문틈으로 들려오는  
바람소리 듣고  
지레 겁을 먹었지

친구를 사귀는 것도 그래  
심부름 하는 것도 그렇고  
시험도 마찬가지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쉬운 걸  
지레 겁을 먹었지

- 서금복, 『할머니가 웃으실 때』, 도리, 2003




**선생님께** 구체적으로 인물을 탐구하기 전에 인물에 대한 각자의 감상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해 주세요.

4. 다음은 작품에서 시은이의 감정이 드러나는 문장입니다. 글에 담긴 시은이의 감정을 파악해 봅시다.

문장	시은이의 감정
<p>① 『재관람 카드의 비밀』 본문 11쪽 유일하게 자유롭다고 느끼는 순간이 공연을 볼 때다. 새롭게 창조된 세계에 나도 얼굴을 디밀고 함께 있는 기분.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다.</p>	<p>뮤지컬을 보고 현실에서 느끼지 못한 해방감, 자유로움을 느꼈다.</p>
<p>② 본문 23쪽 학교에선 눈에 띄지 않고 적당하게 모범적인, 세상 재미없는 애가 나다. 하지만 인스타그램 세상에선 나를 핫하다.</p>	

문장	시은이의 감정
<p>③ 본문 24쪽</p> <p>나는 피드를 공연 사진으로 도배하면서도 본진이 누구라고 밝히는 것만은 하지 않았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p>	
<p>④ 본문 51쪽</p> <p>“관심 있으면 말해 줘!”</p> <p>젠 왜 저렇게 큰 소리로 광고하는 거야. 다른 애들 앞에서 뭘 좋아한다는 티 내는 거 딱 질색인데. 성가시고 당황스러웠다.</p>	
<p>⑤ 본문 63쪽</p> <p>나는 항상 완벽한 사람이 되도록 애썼다. 똑같이 잘못해도 엄마와 살지 않는 나를 걸고넘어지는 꼴을 몇 번 당하고 나서 는 조금의 빈틈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p>	
<p>⑥ 본문 65쪽</p> <p>‘좋아한다고 말하는 게 어때서.’</p> <p>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도 상대는 내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 의도와 다르게 오해나 어설픈 공감 따위 받기 싫어서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지냈을 뿐이다. 그런데 되짚어 보니 그 이유만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좋아한다고 말하는 내 모습을 떠올리면 두려움이 앞섰다. 도대체 왜?</p>	
<p>⑦ 본문 77쪽</p> <p>굳이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왔다. 마음은 아무런 힘이 없었다. 엄마가 떠날 때도 마찬가지였다. 엄마가 좋다고 소리쳐 봐야 엄마를 막을 수 없었으니까.</p>	
<p>⑧ 본문 80쪽</p> <p>언니 덕분에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고 누군가를 향한 마음은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마음을 전하는 일은 약점이 아니라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p>	

**선생님께** 주인공의 감정을 간단한 단어보다는 구체적인 이유가 포함된 문장으로 표현하도록 이끌어 주세요.

5. 시은이는 주희 언니와의 만남을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주희 언니를 만난 시기를 기준으로 시은이의 변화된 생각을 적어 봅시다.

주희 언니를 만나기 전



주희 언니를 만난 후

## 생각 더하기

1. '나'를 중심에 두고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들을 찾아 <작성 요령>에 따라 표현해 봅시다.

<작성 요령>

1. 친밀감이나 관계의 중요성은 선의 굵기로 표현한다. (점선, 실선, 굵은 선으로 구분)
2. 카테고리별로 제시된 동그라미(인물)는 모두 채우지 않아도 된다.
3. 예시: 가정에서 A와 매우 친밀한 관계이다.

1-1. 나와 가장 닮은 사람은 누구인가?

1-2. 나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1-3.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3. 다음 글을 읽고, 아래 입장 중 한 가지를 정해 자신의 생각을 적어 봅시다. 그리고 두 마음 토론 기법을 활용하여 친구들과 생각을 공유해 봅시다.

굳이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왔다. 마음은 아무런 힘이 없었다. 엄마가 떠날 때도 마찬가지였다. 엄마가 좋다고 소리쳐 봐야 엄마를 막을 수 없었으니까. (본문 77쪽)

마음은 힘이 있다. VS 마음은 힘을 가지지 못한다.

#### ■ 두 마음 토론 방법

가. 3인 1조가 되어 판결자, 찬성자, 반대자 중 한 역할을 선택한다.

만일 네 명이 한 모듬일 경우, 한 명은 관찰자, 중립자, 교사 도우미 등을 한다.

나. 논제가 주어지면 판결자는 양쪽을 30초씩 시간을 주어 쳐다보며 의견을 듣는다.

찬성자와 반대자는 판결자를 쳐다볼 때만 말할 수 있다.

다. 판결자는 양쪽의 의견을 세 번씩 듣는다.

찬성자와 반대자는 판결자에게만 말할 뿐, 상대방에게 직접 말하거나 질문할 수는 없다.

라. 양측은 한 번씩 30초간 찬스를 사용하여 마지막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마. 판결자는 자신의 생각을 배제하고 양측의 논리성만 생각하여,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고 소감을 전한다.

※ 〈두 마음 토론 방법〉 출처: 토론으로 톡(Talk)하고 행복으로 통(通)하는 교실 / 광주광역시교육청

4. 만일 우리 학급에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나는 그 친구에게 어떤 말을 전할 수 있을까요?